

10/26(수) 욥기 묵상 44

욥기 34:1-3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2-33장에서 엘리후는 욥을 이해하는 듯한 호의적인 논조와는 달리 욥 34장부터는 자신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피력합니다.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보다 더 심한 말투로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무례한 말을 쏟아 놓습니다.

엘리후의 주장

욥기 34장의 내용은 평행법 구조로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죄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후가 평가하는 욥이 펼치는 잘못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본문 5-9절 그리고 34-37절에 나타난 욥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5-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을 비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둘째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0-15절 그리고 29-33절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악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롭지 않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정의롭지 않고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셋째로,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낫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셋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는 인간이 설령 그의 삶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결코 공정하지 않는 것과 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공의로운 통치와 정의로운 심판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나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는 매우 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명함 만을 강조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할 때 내가 이해하는 분명함 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좋으시고 선하신 분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의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잘못 설명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후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의로운 심판이 악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들이 평생 형통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시 73:3-5,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도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엘리후의 말대로 꼭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실족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롬 11:33-36,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다 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들과 해외에 흩어진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체셔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지역을 위한 기도:** Hamden High School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